카페 앞에는 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이 놓여 있다.

고양이가 귀엽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을 사용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를 시행하고자 고양이를 포획하기 쉽게한다.)

차가 많아서 길을 조심히 걸어야 하고 걸어간다면 중간에 차를 위해 비켜줘야하는게 불편하다. 빨리 달리고 싶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말 것.

길가에 군데군데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 가게들이 있어 즐거움을 준다.